

권혁홍 회장, 안양종친회 초청 방문

안양종친회(회장 권순보)에서 권혁홍 대종회 회장을 초청했다. 안양종친회는 9월 3일 오후 6시 30분 햇살마루에서 권혁홍 회장을 비롯하여 권순보 안양 종친회장, 권행완 사무총장 겸 편집국장, 권정걸 상임위원, 권혁환 상임위원 등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일 년에 네 번씩 하는 정기모임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한다. 권순보 회장은 회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그동안의 모임이 가능했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권순보 회장은 권혁홍 회장님 취임식에 참석했다. 권혁홍 회장님께서 골판지 사업으로 외길 인생 60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짝 놀랐다. 회장님 연세가 올해 86 세이신데 아직도 현역이시다. 저는 그동안 70가지만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취임식 이후 충격을 받고 80 세까지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회장님 덕분에 10년 더 일하게 되었다.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저 또한 감사드린다. 또 멀리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순보 회장은 권혁홍 회장께 안양종친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안양종친회 방문을 환영했다.

권혁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환영해 주셔서 고맙다. 저희 선조들은 600년 전부터 여주에서 세거하셨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시골생활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왔다. 서울 종로구 삼정동으로 이사 와서 난 아들이 저다. 안양은 저와 인연이 깊다. 제가 첫 사회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안양이다. 경기도 안양시 군포읍 당정리에서 제지공장을 시작했다. 금년이 골판지 제지사업을 한 지 60년째 되는 해이다. 골판지를 만드는 분, 쓰시는 분, 관심있는 분은 저를 기억할 것이다. 제가 집안의 막내였는데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장사를 했다. 사람들은 저를 학생시장으로 불렀다. 41년생인데 아직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다. 지난 5월에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에 취임했다. 안동권문을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안양은 제2의 고향이다. 안동권문의 희망을 담아서 대종회를 이끌어가고려 한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권정걸 상임위원(전 안양종친회장)은 권혁홍 회장님께서 안양종친회를 전국 지역종친회 중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감사드린다. 사무총장까지 오셔서 더 반갑다. 옛그 집 발표된 상임위원 명단을 보니 안양이 3명이더라. 상임위원이 30명인데 3명이면 10분의 1이다. 권혁홍 회장님 가는 길에 안양이 제일 앞장서서 돕도록 하겠다. 회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회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권혁환 상임위원은 제가 대종회 부회장이자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종친회 나와서 남는 게 없어라. 도움이 돼야 나오지 않겠는가. 권혁홍 회장님 만나 뵈는 지 13년



되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좋아한다. 그런 분이시다. 안양종친회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인상 장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혁명공약을 들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혁명공약이다. 이 혁명공약처럼 안양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나타나신 인재들이 권정걸 전 안양종친회장과 권순보 회장이라고 생각한다. 종친회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금 조성에 신경 좀 써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태 청년회장은 행사 있을 때마다 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회원으로 종친회에 처음 나온 권영섭씨는 인사말에서 35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안양경찰서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충남 홍성이 고향이고 종친회는 처음이다. 다른 모임에는 잘 안 나가는데 안동권씨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종친회에 나왔다. 열심히 하겠다. 안동권씨는 인생도 양반이다. 그런데 너무 양반이다. 그게 문제다.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할아버지는 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다고 말했다.

권영섭씨 할아버지 권중복(權重福, 1891~1971) 독립운동가는 1891년 10월 1일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 송암리(松岩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1일 충남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와 홍성 시장에서 만세운



권순보 안양종친회장의 인사말(가운데)

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금마면 가산리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가산리 이원교(李元交)의 집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을 때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1일 밤 임시 공연장에 모인 30여 명의 관중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다. 만세운동이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자, 이들은 이튿날 홍성 장터로 나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펼쳤다. 권중복 할아버지는 이날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4월 19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중복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날 안양종친회는 메트로와 장례식장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메트로 측 관리이사는 종친회와 MOU를 맺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權字 이야기-1

한류문화원 권오철(부정공파 35世)

權의 글자 - 저울에서 권력까지

‘權者 , 衡也’, 곧 ‘權은 헤아리고 균형을 잡는 것’

‘權’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먼저 ‘권세’, ‘권력’, ‘권리’, ‘권한’이라는 현대적 의미가 떠오른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권력자’라 하고, 개인이 누리는 법적 자격을 ‘권리’라 하며,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권한’이라 한다. 그러나 權이라는 글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정치적·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權은 전통적으로 목(木)과 관(權)이 결합한 형성자로 설명된다. 木은 나무이고, 權은 본래 새와 관련된 글자이면서 이 글자에서는 음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權의 자형을 단순히 ‘나무와 황새가 합쳐진 글자’라고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고대의 저울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무게를 헤아리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판단’, ‘기준’, ‘권리’, ‘권력’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고대 사회에서 무게를 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곡식과 금속을 거래할 때도 무게가 필요했고, 세금을 정할 때도 무게가 필요했으며, 물건의 가치를 비교할 때도 무게가 필요했다.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도구가 없다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저울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저울에는 저울대와 저울추가 필요하다. 한 쪽에 물건을 올리고 다른 쪽에 추를 달아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울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울은 어느 쪽이 강한지, 어느 쪽이 약한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무게를 비교하고 균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성이 훗날 權이라는 글자에 ‘헤아림’, ‘판단’, ‘기준’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더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權에는 ‘힘’보다 먼저 ‘균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힘이 있다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지만, 저울의 힘은 어느 한쪽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다. 양쪽의 무게를 비교하여 균형점을 찾는 힘이다. 그러므로 權을 단순히 권력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글자가 가진 원래의 사상적 폭을 좁히게 된다.

고대 중국에서 權은 저울추와 관련된 의미를 지녔다. 특히 권형(權衡)이라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權은 저울추를 가리키고 衡은 저울대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權衡은 본래 실제 물건의 무게를 재는 도구였지만, 점차 사물의 가치를 비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무게를 잴다’는 물리적인 행위였지만, 그 다음에는 ‘가치를 잴다’는 정신적인 행위가 된다.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에서 사람과 사건의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다시 옳고 그름과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전한다. 결국 權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헤아림의 원리’를 상징하는 글자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權에는 ‘분별’이라는 개념도 들어 있다. 분별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 더 타당한가를 결정하려면 각각의 무게를 헤아려야 한다. 저울이 물건의 무게를 측정한다면 인간의 이성도 가치와 의미의 무게를 측정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등장한다. 그것이 ‘권의(權宜)’이다. 權宜는 일정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權은 ‘권력’이라는 뜻보다 ‘저울질하다’, ‘헤아리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진다. 즉 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는 판단이 權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정치철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통치에서 권력은 단순한 힘의 크기가 아니다. 권력은 누구에게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권력에는 반드시 판단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결정할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權은 균형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된다.

반대로 권력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면 權은 공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權力이라는 말이 생겨난다. 力은 힘이고 權은 헤아리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權力은 단순한 물리적 힘과 다르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현실에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러나 權力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權의 본래적인 ‘균형’이라는 의미가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커지면 저울의 한쪽에 지나치게 많은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때 권력은 공정한 판단의 수단이 아니라 편향된 지배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權이라는 글자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권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권력을 어떻게 헤아리고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의 ‘권리’라는 말도 이러한 의미 확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權利에서 權은 정당하게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되고, 利는 이익 또는 이로운 것을 뜻한다. 현대의 법체계에서 권리는 개인이 국가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유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저울의 상징을 생각할 수 있다. 권리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가지는 특권과 다르다. 법 앞에서 각 사람에게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권리는 ‘힘’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균형’과 ‘기준’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리(權利)와 권력(權力)은 같은 權을 사용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權力은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힘에 초점을 둔다. 權利는 개인 또는 집단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에 초점을 둔다. 권한(權限)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업무나 영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여된 범위를 의미한다. 권위(權威)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정당한 영향력과 관련된다. (다음호에 계속)

문경공 자료관 자료 정리



처 장관급으로 예조의 최고 책임자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외교, 교육과 과거 등을 담당한다. 이 문서는 ‘국왕이 문경공에게 정2품 자헌대부의 품계와 예조판서의 관직을 내린 교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지도는 문명의 시야이자 국가의 흥망성쇠와 정확하게 일치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이자 세계에서 아프리카를 세계 최초로 그린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圖之圖)이다. (1402 강리도)의 저자 김선홍 작가(전 청다오 총영사)가 양제에 위치한 한국시민리더십학습원 초청으로 9월 10일 오후 3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하여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한국리더십학습원 원장), 장성민 한국재활복지재단 학장,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총장, 이석현 한국시민리더십학습원 사무국장, 백정흠 한국리더십학습원 서울자유길학교 추진위원장, 백정중 서울자유길 가이던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김선홍 작가는 먼저 이탈리아 피렌체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圖之圖)를 홍보하고 있는 동영상을 아랍어판과 영어판을 틀어주었다. 홍보동영상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선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김선홍 작가는 직접 붓으로 쓴 양촌 선생의 발문을 들고나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세계지도 역사상 왜 지도를 만들려고 했는지 제작 경위 등에 대한 발문을 쓴 지도는 없다. 그러나 강리도에는 양촌 권근 선생의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양촌 선생의 기록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실록에도 없다. 양촌 선생이 만일 발문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도가 1402년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좌우정승이 간여한 사실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양촌 선생은 강리도는 건문 4년 1402년 가을 8월에 제작했고 누가 그렸는지를 상세하게 밝히 강리도의 주인이 한국임을 알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홍 작가는 지도는 지리적인 인식이자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은 1402년 세계지도를 그린 이후에 세계지도를 제작한 적이 없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1867년에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는 그 시야가 한반도에 머



김선홍(왼쪽에서 두 번째) 작가가 양촌 권근 선생의 강리도 발문을 설명하고 있다.

물고 있다. 지리적인 시야는 세계인식에 대한 시야이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정확하게 궤를 같이한다.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강리도가 중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은 하늘을 대신하여 다스리려는 대천이물(代天理物)을 위해 지도는 꼭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려의 시야는 세계적인 시야 그 자체였다. 세계화 차원이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 조선의 시야는 축소되고 폐쇄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권행완 사무총장은 조선조기 국가적으로 매우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흔히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천(天) 즉, 하늘에 대해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가 제작이 되었다. 이것은 원래 고구려 때 제작한 석가도인데 조선이 건국되자 누군가 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태조 이성계에게 탁본을 바쳤다고 한다. 이에 양촌 권근 등 12명이 조선이 바라보는 하늘로 별자리를 고쳐 다시 제작했다고 한다. 그다음 땅 지(地)에 해당하는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그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

람, 즉 인(人)만 남았는데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윤재 원장은 그 당시 세계와 차원의 보편의식이 존재했다. 특히 원나라 세계화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관찰이란 말은 관천문(觀天文) 찰지리(察地理)의 준말이다. 천문과 지리를 관찰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탄생한 듯하다. 한반도 지도를 유난히 크게 그린 것도 땅의 이치를 글로말하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화(中華)라는 말도 원래 하늘의 이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이치가 이 땅에 만개한다는 뜻이다. 보편 개념으로 보면 누구나 중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도 훈민정음 만들면서 세계의 언어를 수집하여 세계 차원의 지식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중화를 최대화하려고 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민국(民國)이라는 개념이 이미 숙종 때 실록에 나온다. 고종 때는 민(民)이 첨첩이 쌓여야 국가가 된다고 말했듯이 그만큼 보편 가치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